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신희경**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 및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공격 가해 및 피해 행동의 경험정도에 따른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유형별 특성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다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과 예측확률치 비교분석 결과 부모의 공격적 학대(욕설, 구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조사대상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해/피해집단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할수록 피해집단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선학교의 교사와 청소년 지도 관계 전문가들이 폭력행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지속적 발달, 부모의 공격적 학대, 또래로부터 거부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 및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I. 서 론

1970년대 중반에 발표된 Olweus(1974, 1978)의 연구는 가해행동뿐만이 아니라 피해행동 역시 공격성 연구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함을 보여줌으로써 공격성의 피해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Arora and Thompson, 1987; Munthe, 1989; Olweus, 1984; O'Moore and Hillery, 1989; Perry, Kusel and Perry, 1988),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공격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부모와 교사의 양육 및 교육방식 그리고 학교환경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며(Atlas and Pepler, 1998; Olweus, 1997; Rigby and Slee, 1991; Schwartz, Dodge and Coie, 1993; Siann, Callaghan, Lockhart and Rawson, 1992; Sharp, 1996; Whitney and Smith, 1994),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격 피해자에 관해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이숙·이춘아, 1998; 이춘재·곽금주, 1999; 이경님, 2001 등).

그러나 최근의 공격성 연구에서는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공격성 발달과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박종효, 2005; 박영신·김의철, 2001; 이춘재·곽금주, 2000; 정지민, 1998; 정태연·김은정·김인경, 2000; Toblin and Schwartz and Gorman and Abou-ezzeddine, 2005; Hanish and Guerra, 2004 등). 공격성 발달을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해행동은 공격성이고 피해행동은 비공격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의 공격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지영(2006)은 Swearer와 Doll(2001)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가해자는 항상 가해자로, 그리고 피해자는 항상 피해자로만 파악되는 이분법적 관점과 개인 중심적 관점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관찰해보면 한 개인이 여러 유형의 공격행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평소 또래집단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오히려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이 특정한 상황 및 개인적 계기로 인해 매우 폭력적인 가해자로 변화하기도 한다. 반대

로 Olweus(1978)가 지적한 “도발적인 희생자(provocative victims)”의 경우처럼 평소 잦은 분노표출과 공격적인 대인행동으로 인해 또래집단과의 갈등과 싸움을 자주 불러 일으키고 이로 인해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희경(2004)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이나 공격행동을 자주 당하는 아동들이 주로 가해행동을 하는 아동들 못지않게 높은 공격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이들의 경우 공격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규미, 이대식과 김영혜(2003) 역시 사례연구를 통해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폭력의 가해자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격행동의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서로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연관 속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어떤 개인과 가정의 요인들이 가해와 피해의 경험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격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가해와 피해행동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격행동집단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해 및 피해경험 정도에 따라 전형적인 가해집단(전형적 공격자 집단), 전형적인 피해집단(전형적 희생자 집단), 가해/피해집단(공격적 피해자 집단)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한다.

Olweus(1993)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공격행동 유형을 전형적인 피해자와 전형적인 가해자, 그리고 불안반응과 공격반응이 혼합되어 있는 도발적인 피해자 집단을 구분하고, 도발적인 피해자가 갖는 심리 및 행동적 특성과 양육환경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가정과 학급 그리고 학교 차원의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공격행동의 유형별 특성 파악에 크게 기여하였다.

Schwartz, Dodge, Pettit와 Bates(1997)는 괴롭힘에 있어서 “공격적 피해자(aggresive victims of bullying)”와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를 구분하였다. 공격적 피해자는 공격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는 집단으로서 자신의 충동

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 집단으로부터 공격적인 피해를 당하고 이에 또 다시 공격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피해와 가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Toblin, Schwartz, Gorman과 Abou-ezzeddine(2005)는 공격적 피해자 집단의 사회 인지 및 행동적 특성과 학업성취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공격적 피해자 집단에 속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은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감정통제수준과 대인관계에서의 선호도, 학업성취도 수준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수준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우울과 외로움과 같은 정서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은 공격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자신이 그러한 공격행동을 잘 수행할 것이라 판단하는 사회인지적 양식에 있어서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가해자 집단은 선행 공격자(proactive aggressor)들로서 감정적, 충동적인 공격행동이 아닌 계획된 공격행동을 하며 주로 공격행동을 시작하고 주도하며 공격행동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공격적 피해자들은 반응적 공격자로서(reactive aggressor)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된 공격행동을 나타내며 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적대적 귀인의 결과인 공격적인 반응으로서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사용하는 가해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분노와 불안에 기인한 반응적 공격자 집단에서 공격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행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인지적 신념이 약한 반면에 정서통제수준은 더 강하게 나타나 위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Woods와 White(2004)는 괴롭힘의 유형을 먼저 직접적인 괴롭힘(direct bullying)과 관계적인 괴롭힘(relational bullying)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을 다시 전형적인 가해자, 전형적인 피해자, 가해/피해자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 하위 집단별로 각성수준(arousal levels)과 임상적 문제행동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높은 각성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높은 각성수준은 다시 임상적 문제행동의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ish와 Guerra(2004)는 공격적 피해자 집단의 특성이 얼마나 발달적 연속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추적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연령이 증가하면서 공격적 피해자보다는 전형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집단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공격적 피해자 집단과 전형적인 가해자 집단간에는 발달과정에서 서로 이동현상이 나타났으나 전형적인 피해자 집단이 가해자 집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해도 처음에 속했던 집단과 같은 집단에 남아있게 되는 확률은 전형적인 피해자 집단이 가장 낮았는데 이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소수만이 남아 있었고 대부분 정상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연령이 증가해도 전형적인 피해자 집단에 속하는 안정적인 공격적 피해자들은 정상 집단으로 이동한 피해자들에 비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아동들의 피해경험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공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고 위험집단으로 여겨지는 공격적 피해집단의 발달적 지속성은 또래집단과의 관계와 폭력에의 노출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해와 피해에 따른 공격행동의 유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정지민(1998)은 공격행동의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정도와 공격성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가해/피해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력에 있어서 더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폭행, 간접적 공격성 등에 있어서는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춘재와 곽금주(2000)는 공격행동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서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교사의 지지 정도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정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급우지지와 친한 친구의 지지는 가해집단이 정상집단 만큼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해집단의 경우 친한 친구의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피해집단으로의 발달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의 실패가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였다. 반면에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품행과 관련된 자기개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집단 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가해/피해집단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박종호(2003)는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격자 집단, 피해자 집단 그리고 공격적 피해자 집단간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관계 및 문제행동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 피해자 집단은 분노나 불안과 같은 정서수준이 높고 정서 및 행동조절 수준과 자아개념은 낮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배척과 외톨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

제행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피해자 집단이 우울과 분노와 같은 내면적 수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고 가해자 집단이 반사회적 품행장애와 같은 외면적 수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는데 비해서 공격적 피해자 집단의 경우 두 영역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격행동의 유형별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박종효(2005)는 공격행동과 피해행동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의 이러한 행동유형이 외현적 및 내현적 문제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공격행동을 외현적 공격행동과 대인관계 공격행동으로 구분하고 피해행동은 하위구분이 없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기부터 학령전기에 측정한 아동의 기질(특히 즉흥적 분노) 및 사회지각능력(대인지각능력)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학령기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행동과 더불어 피해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가해 및 피해행동은 2년 후의 문제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ornadt(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는 문화비교적 종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민감성 부족과 불안정한 애착에 기인한 정서적 수용성(emotional responsiveness)의 부족과 아동의 기질적 분노수준이 상호 작용하여 갈등심화적인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의 적대적인 인지, 정서적 세계관이 확립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이 발달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혜섭(2005)과 김선아(2005) 역시 공격행동의 유형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김선아(2005)는 비교집단으로서의 일반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서 비교하였는데 각각의 집단에서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해와 피해 경험에 미치는 변인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해와 피해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집단별 그 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분석하였으나 각 집단유형 자체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신혜섭(2005)은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각각의 집단유형별 특성을 서로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일탈적 자아개념, 남성 역할 고정관념, 공격성, 친구와의 애착, 부부간 갈등의 목적, 학교생활 부적응은 가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고 낮은 긍정적 자아개념, 부모로부터의 학대, 학교부적응은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긍정적 자아개념, 부부간 갈등의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학대, 학교생활 부적응은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해와 피해, 그리고 가해/피해집단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거나 각각의 집단 내에서 가해 또는 피해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있으며(Perry, Krusel & Perry, 1988; 박종효, 2005; 이영선, 이경남, 2004; 이점숙, 유안진, 1999; 이춘아, 2001 등) Olweus(1978)와 신혜섭(2005)의 연구를 제외하면 각 집단유형별 특성을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가해/피해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걸친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유형별 집단으로 발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분노수준, 부모의 공격성이나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변인에서 가해/피해집단이 전형적인 가해 및 피해집단과 구분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¹⁾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패널조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및 그 부모 3,400여명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및 부모 2,800여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그 부모 3,44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표집은 층화다단계군집표집으로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중학교 2학년

1)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인터넷 사이트의 청소년 패널조사 참조

학생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그에 따른 학교수를 결정하고(한 학교에 1개 학급 전원 조사) 학교별 2학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학교를 추출한 후 그 학교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이 무작위 추출되었다.

2. 측정도구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설문지는 크게 학생대상과 부모대상으로 나뉘어 진다. 학생용 설문지는 학생의 인적사항, 직업선택, 향후진로결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 및 기타, 생활영역별 생활배분 및 중요도와 자아관 및 기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관련된 문항과 그 데이터를 선별하였으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수집된 2개년도의 것을 모두 사용하였다.

3. 측정변인 및 자료처리

먼저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기준집단으로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설정하였는데 학생개인 변인으로서 조사대상 학생의 분노수준, 공격행동 자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자아관, 고립된 또래관계를 설정하였다.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은 공격행동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경향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공격행동을 수행하는가, 억제하는가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통제변인으로 학생의 성별과 성적을 고려하였다(표 1).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정도, 부모의 공격적 학대의 경험 그리고 학생에 대한 부모의 감독수준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에서 더 나아가 부정적인 부모와의 관계 중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전형적인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는 데에 있다.

<표 1> 변인에 대한 정의

변 인		문항 및 척도	문 항 내 용
종속변인	가해/피해집단 공격가해집단 공격피해집단 기준집단	가해행동문항 37-6, 8, 11, 12, 13 피해행동문항 39-1, 2, 3, 4, 6 명목척도 (0: 그런 적이 없다 1: 그런 적이 있다) 연속변수(행동횟수)	다음 각 사항에 대한 경험여부와 경험횟수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심하게 맞기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강제로 빼앗기기 -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 남을 협박하기/협박당하기 -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 시키기/ 집단따돌림 당하기
	성 별	1: 남자, 0: 여자	
독립변인	학교 성적	문항 17	전교등수로 표시된 석차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낮음)
	부정적 자아관	문항 48-1-4, 5, 6 서열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관 -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함 -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함 -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 느낌
	분노수준	문항 48-3-4, 5, 6, 서열척도 (위와 동일)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분노수준 -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김 -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음 -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함.
	공격성에 대한 가치관단적 태도	문항 34-4, 48-3-2 서열척도 (위와 동일)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 남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 누군가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고립적 교우관계	문항 35-7, 8 서열척도 (위와 동일)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고립적 - 학교에 학생이 많아도 자주 외로움 -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림(역코딩)

변 인	문항 및 척도	문 항 내 용
독립변인	부모의 공격적 양육방식	문항 33-14, 15 서열척도 (위와 동일)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 양육 -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들음 -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음
	부모의 감독수준	문항 33-7, 8, 9, 10 서열척도 (위와 동일)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감독수준 - 내가 외출하면 어디 있는지 부모님이 알고 계심. - 내가 외출하면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심. - 내가 외출하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심. - 내가 외출하면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심.
	부모님과 갈등관계 정도	문항 49-2, 3, 4 서열척도 (위와 동일)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관계(자주 경험하는 정도) -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함 -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함 -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함

종속변인인 공격유형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 처리 방법은 분석결과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독립변인들의 값은 각각의 변인에 해당하는 서열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의 값을 표준화점수로 환산한 후 합산하였다.

4. 분석방법

통계적 분석은 2003년도 데이터를 독립변인으로, 2004년도 데이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달리 각각의 조사년도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각 년도별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2차 년도에 걸친 자료전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독립변인은 2003년도의

데이터를, 종속변인은 2004년도의 데이터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유의하게 확인되는 변인이 있다면 이는 2차 년도에 걸쳐서 종속변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향후 2차년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변인별 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일반 회귀분석과 달리 다항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공격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집단들이 이론적으로 하나의 특성을 기준으로 서열화 된 집단들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하나의 기준집단과 나머지 집단들을 각각 비교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의하게 확인된 변인에 한하여 예측확률치를 비교함으로써 변인의 증감에 따른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의 증감을 비교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먼저 종속변인인 공격유형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공격가해행동과 공격피해행동 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과정은 각각 두 변인의 측정과 관련 있는 명목척도로 된 문항들 값에 경험행동횟수를 곱한 후 총 합계를 내었다. 예를 들어서 공격가해행동은 심하게 때리기, 강제로 물건 빼앗기 등의 5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0 또는 1을 부여하고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경우 경험한 횟수를 곱한 후 5개 문항의 값을 합계하였다.

이와 같이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점수를 산출하고 나서 전체 빈도를 살펴본 결과, 2003년도의 1차 자료에서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서 총 3216명 중에서 1925명이, 2004년도의 2차 자료에서는 총 3196명 중 2577명이 공격가해 및 피해행동 모두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59%와 80%). 이처럼 2004년도 자료에서 무경험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조사대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장 심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의 및 타의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게 되는 3학년으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추적조사로 인한 개인의 노출에 대한 심리적 우려도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석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들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집단을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할 경우 그 결과의 유의성이 과잉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험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예, 신혜섭(2005)) 한번이라도 가해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과 20~30번 경험한 학생의 공격성의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두 행동 모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두 행동 중 한 쪽 행동만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두 행동 모두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가해행동과 피해행동점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평균을 산출한 후 두 점수 모두 평균 이상인 경우 가해/피해집단으로, 가해점수는 평균이상이고 피해점수는 평균이하인 경우 가해집단으로, 피해점수는 평균이상이고 가해점수가 평균이하인 경우를 피해집단으로 그리고 두 점수 모두 평균이하인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행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을 기준집단으로 하지 않고 두 행동을 평균보다 적게 경험한 학생들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인별 집단구분의 유의성이 확인된다면 더욱 엄밀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아래와 같은 네 개의 공격유형별 집단을 분류하여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표 2).

<표 2> 공격경험에 따른 집단유형분류 (2003년: N=1,291 2004년: N=619)

집 단 구 분	학 생 수 (%)	
	2003년	2004년
기준집단	911(70%)	428(69%)
가해집단	174(13.5%)	99(16%)
피해집단	148(11.5%)	77(12%)
가해/피해집단	58(5%)	15(3%)

위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표준화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행동점수 모두 평균이하인 기준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경험여부를 기준으로 한 집단분류에 비해 집단간의 질적 차이가 최소화됨으로써 결과의 과잉추정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분류에 이어 종속변인을 포함한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2003년도와 2004년의 변인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성적을 제외한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부정적 자아관, 분노수준,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고립된 교우관계 그리고 공격가해 및 피해행동 정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표 3> 변인별 기술 통계치(2003년/2004년)

변 인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성별	1291/ 619	.58/ .60	.49/ .49	0/ 0	1/ 1
성적	1161/ 526	42.9/ 41.4	26.9/ 26.7	1/ 1	100/ 100
부정적 자아관	1289/ 619	.49/ .52	2.24/ 2.62	-5.28/ -5.15	6.53/ 6.81
분노	1291/ 617	.69/ .74	3.02/ 2.67	-5.6/ -4.2	8.63/ 6.61
공격행동에 대한 태도	1291/ 619	.38/ .56	1.58/ 1.71	-4.10/ -3.99	3.95/ 3.92
고립된 교우 관계	1291/ 619	.06/ .10	1.72/ 1.74	-2.45/ -2.74	5.95/ 5.81
공격가해행동	1263/ 619	.26/ 1.63	1.59/ 6.30	-.17/ -.39	28.31/ 64.37
공격피해행동	1270/ 619	.27/ 1.64	1.59/ 7.99	-.18/ -.39	27.04/ 136.04
부모의 공격적 양육방식	1290/ 619	.35/ .47	1.98/ 2.88	-1.47/ -1.51	6.60/ 6.40
부모의 감독수준	1200/ 619	.16/ -.36	3.43/ 3.57	-9.57/ -9.57	6.59/ 6.59
부모와의 갈등 정도	1291/ 618	.57/ .69	2.76/ 2.88	-4.85/ -4.95	6.21/ 6.67

그러나 공격가해 및 피해행동 변인의 경우 두 행동 모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매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볼 때는 두 행동의 평균점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두 행동점수의 최대값은 증가하였으나 최소값은 감소하였으며 표준편차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관련 행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공격피해 및 가해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학생과 적게 경험하는 학생들로 이분화 되어 전형적인 공격성 관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관련 변인도 각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4>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2003/2004년)

	성적	부적 자아관	분노	공격성 에 긍정	고립	가해 행동	피해 행동	부모 공격성	부모와 갈등	부모 감독
성적(1)	1									
(2)	1									
부적 자아관	.09***	1								
	.13***	1								
분노	.05	.25***	1							
	.05**	.26***	1							
공격성 에 대한 긍정적 태도	.04	.20***	.41***	1						
	.02	.17***	.36***	1						
고립	.01	.17***	.02	-.16***	1					
	.06**	.21***	.14***	-.05**	1					
가해 행동	.03	.06**	.14***	.17***	-.02	1				
	.02	.03*	.86***	.13***	-.00	1				

	성적	부적 자아관	분노	공격성 에 긍정	고립	가해 행동	피해 행동	부모 공격성	부모와 갈등	부모 감독
피해 행동	.00 .01	.06** .07***	.00 .03*	-.07** .02	.16*** .04**	.09*** .09***	1 1			
부모의 공격성	.11*** .17***	.20*** .21***	.13*** .21***	.15*** .14***	.14*** .24***	.09*** .08***	.05* .04*	1 1		
부모와 의 갈등	.10*** .08***	.29*** .25***	.24*** .25***	.24*** .17***	.06** .14***	.10*** .08***	-.01 .01	.40*** .31***	1 1	
부모의 감독 수준	.07*** -.22***	.01 -.09***	.03 -.07***	-.02 -.05**	-.01 -.11***	-.02 -.02	-.01 -.01	-.04 -.16***	.04 -.21***	1 1

*p<0.1 **p<0.05 ***p<0.01 (1): 2003년 (2):2004년

2003년과 2004년 자료를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도 자료 분석에서는 공격가해행동과 부정적 자아관, 분노 수준,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피해행동,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경험, 부모와의 갈등이 정적인 상관이 있고 공격피해행동과는 부정적 자아관, 가해행동, 고립된 교우관계,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경험이 정적인 상관이 있고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분석에서 공격가해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2003년도 결과와 일치하였다. 2004년도 피해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변인은 부정적 자아관, 가해행동, 고립된 교우관계와 더불어 분노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상관계수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계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2003년도 자료를 독립변인으로, 2004년도 자료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먼저 기준집단과 피해집단을 비교하면 학교성적이 낮고 고립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으며 패널자료를 이용한 본 분석에서도 재확인됨으로써 공격피해행동의 발달에 교우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관계형성에 실패한 학생은 공격적인 학생의 공격성 분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공격행동의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고립된 교우관계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해 피해행동이 반복, 심화되어 전형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표 5> 공격행동유형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공격가해 및 피해경험					
	기준집단 대비 가해/피해 집단		기준집단 대비 가해 집단		기준집단 대비 피해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1.086	.4346**	-3.005	.470***	-3.389	.642***
성별	-.351	.304	.209	.381	.032	.488
성적	.005	.006	.001	.007	.027	.009**
부정적 자아관	.089	.068	.011	.079	.070	.103
분노수준	-.204	.056	.062	.066	-.155	.086*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217	.108**	.201	.134	.189	.156
고립된 교우관계	.007	.086	-.158	.109	.280	.128**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180	.074**	.058	.086	.118	.120
부모의 감독수준	.054	.045	.015	.076	-.004	.072
부모와의 갈등수준	-.124	.052**	.117	.076	-.213	.094**
가능도비 <i>chi2</i>	57.67***					
<i>R2</i>	.081					
사례수	306					

*p<0.1 **p<0.05 ***p<0.01

이와 동시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분노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lweus(1974, 1978)는 전형적인 피해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정서적인 분노수준이 낮은 반면에 수줍음이나 불안감

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Kornadt(1984) 또한 피해집단을 공격동기는 낮고 공격억제동기가 높은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분노수준은 낮고 공포와 수줍음, 죄책감이 크며 지나친 자기희생적인 피해행동을 자주 경험하는 집단으로서 과잉보호와 지나친 억제위주의 양육환경에서 발달된다고 보았다. 위의 분석결과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문항과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의 첫 번째 결과와 달리 기준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을 비교하면, 학생이 공격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공격적인 양육태도가 모델링 효과를 통해 자녀의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또한 전형적인 피해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요구된다. 가해/피해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정서 및 행동적 의존도가 높아서 갈등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못하고 억제되고 부모가 (공격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가 대립하는 갈등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적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회경(2003)의 사례연구에서도 피해행동과 폭발성 공격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아동들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의 공격적 학대를 경험하면서 공격성이 발달하게 되고 부모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부모는 또 다시 공격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고 공포감을 조성함으로 인해 부모와 아동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특성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 중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5개의 문항들을 추가로 선별하여 그 답변을 표준화한 후 각 집단유형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 모두에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정도는 기준집단에서 가장 높고 가해/피해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피해집단은 기준집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6>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수준의 집단별 비교

집 단 구 분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평균값)	
	2003년	2004년
기준집단	-.132	-.403
가해집단	-1.036	-1.014
피해집단	-.379	-.529
가해/피해집단	-2.268	-3.358

(2003년: N=1,291 2004년: N=619)

즉 가해/피해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부모와 가장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준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는 위의 해석과 같이 부모와의 갈등자체를 적게 경험할 정도로 부모에 의한 일방적 통제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공격적인 양육방식에 기인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준집단과 가해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준집단에 비해 가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먼저 박종효(2003)의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공격자(가해집단)은 목적적 공격자의 집단이고 공격적 피해자(가해/피해집단)은 반응적 공격자의 집단으로서, 목적적 공격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거칠고 공격적인 가해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리더로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격성을 경험하고 외부적 책임판단과 적대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공격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독특한 내면적인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이다. 또한 전형적인 피해집단 역시 우울, 불안과 같이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 공격자 집단에 비해 공격적 피해자 집단(가해/피해집단)이나 전형적인 피해자 집단이 내면화된 심리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발달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 2차년도에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전형적인 가해자 집단에서 유의한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전형적 가해자 집단을 특징짓는 발달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현재 2차년도 패널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집단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해집단의 발달기제 상의 유의한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되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준집단과 각각의 집단간의 비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대상으로 예측 확률치를 구하고 4개의 전체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표 7). 아래의 <표 7>에서 예측 확률치는 한계효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독립변인이 1단위만큼 증가할 경우 각 집단유형에 속할 확률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가를 나타내준다.

<표 7> 각 집단유형별 예측확률치 비교(marginal effect)

변 인	기준집단	피해집단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분노	.004	-.009	.009	-.004
고립	.001	.017	-.020	.002
부모와 갈등	.015	-.011	.018	-.022
부모의 공격성	-.033	.004	.000	.029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050	.006	.014	.030

먼저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분노수준이 높아질수록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집단간 비교에서는 가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제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086). 반면에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0039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분노수준이 집단유형별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기제 상의 변인이라기보다 부모관련 변인을 통해 형성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에서 가해/피해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자아관이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유도 위와 같은 매개효과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점은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추후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립된 교우관계는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0167) 반면에 가해집단에 속할 확률은 -.0196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역시 .002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로부터의 거부경험이 가해집단에 비해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확률을 더 증가시킴이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갈등은 앞서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과 같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는 반면에 가해집단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179). 앞에서 제시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계속되는 패널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각각의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존재유형과 특징에 대한 세분화 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각 집단으로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부모의 공격성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자녀가 부모의 공격성을 많이 경험할수록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그 증가정도가 .0286으로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공격성이 가해/피해집단의 특성을 다른 집단과 구분 짓는 발달기제 상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인의 경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해 및 가해/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고 기준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위의 두 집단에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행동을 경험하는 희생자 집단의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뿐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고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공격성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2년간 추적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의 공격가해 및 피해행동을 경험하면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서로 다른 유형의 집단으로 발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집단으로부터 피해집단을 구분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와 고립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고립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을 관찰해보면 해당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집단’으로 인식된 시점은 현재라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나 고립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학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공격행동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실이 학년 초 새로운 또래관계가 성립하는 시기에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또래관계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그 학생은 이전 학년이나 학교에 이어 자동적으로 ‘피해자’로 인식되고 가해자의 ‘목표 집단’이 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피해자’ 집단으로 발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또래와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심각한 거부나 고립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거부나 고립의 경험자체가 전형적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래의 거부에 대한 해당아동의 대처방식 역시 이후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가 아동을 과잉보호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미리 차단해버리거나 부모의 관점과 영향력으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할 경우,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학교생활을 생활을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거부와 같은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resilience)를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짐으로써 이후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인 거부와 따돌림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해/피해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조사대상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경험은 이들 집단의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제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해/피해집단으로의 발달에 무엇보다도 부모의 공격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의 모델링 효과로 인해 자녀가 공격행동을 정당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의 방식으로 인식하게 됨을 나타낸다. Kornadt(1982)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잦은 부모의 공격적 학대의 경험은 부모 및 공격성 자체에 대한 아동의 공포와 우울과 같은 회피적 정서와 미움과 분노와 같은 접근적 정서를 동시에 내면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성이 갖는 지배력과 영향력을 동경하는 긍정적인 인지적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더욱이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면서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을 정도로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고 공격적으로 억압당하는 관계는 단순히 자녀의 공격욕구와 분노수준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에 대한 공포나 우울과 같은 양가적 감정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가해/피해집단의 특성을 형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은 부적절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또래로부터 거부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공격욕구나 분노 및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낮은 피해집단과 달리 단순히 거부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 가해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또 다른 거부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가해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해/피해 집단의 발달에서 피해와 가해경험 중 어느 경험이 먼저 발생하는가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해/피해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공격적 학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공격성에 대한 접근 및 회피의 양가적 정서가 형성되는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일선 관계자들이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관련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결과가 구체적인 진단문항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사나 청소년 폭력 관련 일선 전문가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면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고 있다. 즉 학교생활에서 또래집단과의 관계, 공격성에 대한 정서 및 인지적 태도, 그리고 부모의 공격적 학대여부 등을 포함한 부모-자녀와의 관계적 특성과 같은 요인은 유형별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관찰 및 조사 요인이 된다. 앞으로 몇 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한 패널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분석결과가 확인된다면 그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공격행동유형분류를 위한 양적 및 질적 진단도구가 개발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검사도구의 제한점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의 양태와 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모의 과잉보호와 같이 피해집단의 이해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없어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향후 조사문항이 보충된다면 보다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다른 문항에 비해 학생의 교우관계, 공격성에 대한 태도, 부모의 공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각각 2개 문항에 그치고 있어서 각 변인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비록 문항의 수는 적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각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집단간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변인을 분석하였으나 각 집단의 특성을 형성하는 발달경로에 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추후에 이에 관한 분석이 보완된다면 각 집단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아(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 5~36.
- 박영신·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 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제1호, pp. 63~89.
- 박종효(2003).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행동. 교육학연구, 제41권 제3호, pp. 423~449.
- 박종효(2005).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8권 제1호, pp. 19~35.
- 신희경(2004). 사례연구를 통해 본 아동의 공격성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 99~113.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8호, pp. 37~52.
- 이규미·이대식·김영혜(2003). 심각한 폭력(살인) 가해 학생에 대한 사례 분석: 폭력 유발 요인과 예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 367~382.
- 이 숙·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 pp. 67~77.
- 이영선·이경남(2004).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제13권 제5호, pp. 659~672.
-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제20권 제3호, pp. 107~121.
-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춘재·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제1호, pp. 65~80.
-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최지영(2006). 괴롭힘 행동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Arora, C. M. J. and Thompson, D. A.(1987). Defining bullying for a secondary school. *Education and Child Psychology*, Vol. 4, pp. 110~120.
- Atlas, R. and Pepler, D. J.(1998). Observations of bullying in the classroom.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2, pp. 86~99.
- Hanish, L. D. and Guerra, N. G.(2004).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Developmental Continuity or Developmental Change? *Merrill-Palmer Quarterly*, Vol. 50, No. 1, pp. 17~38.
- Kornadt, H. -J.(1982). *Aggressionsmotiv und Aggressionshemmung*. Bd. 1. 2. Bern, Stuttgart, Wien: Verlag Hans Heber.
- Kornadt, H. -J.(1984). Development of Aggressiveness: A Motivation Theory Perspective. In R. M. Kaplan, V. J. Konecni, and R. W. Nowaco (Eds.). *Aggression in Children and Youth*. The Hague: Martinus Nijhoff.
- Munthe, E.(1989). Bullying in Scandinavia. In E. Roland and E. Munthe (Eds.) *Bully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pp.66~78). London: David Fulton.
- Olweus, D.(1974). Personality factors and aggression: With special references to violence within the peer group. In de Wit, J. and Hartup, W. W. *Determinants and origins of aggressive behavior*(pp. 535-565). The Hague: Mouton.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and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urs in schools*(pp. 57~76). New York: Wiley.
- Olweus, D.(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knowledge base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me. *Ir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18, No. 2, pp. 170~190.

- Perry, D. G., Kusel, S. J., and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6, pp. 807~814.
- Rigby, K. and Slee, P. T.(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ur and attitudes towards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1, pp. 615-627.
- Schwartz, D., Dodge, K. A., and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 *Child Development*, Vol. 64, pp.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and Bates, J. 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Vol. 68, pp. 665~675.
- Siann, G., Callaghan, M., Lockhart, R., and Rawson, L.(1993). Bullying: teacher's views and school effects. *Educational Studies*, Vol, 19, pp. 307~321.
- Sharp, S.(1996). Self esteem, response style and victimization: possible ways of prevention victimization through parenting and school based training programm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17, pp. 347~357.
- Toblin, R. L., Schwartz, D., Gorman, A. H., and Abou-ezzedine, T.(2005).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attributes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No. 3, pp. 329~346.
- Whitney, I. and Smith, P. K.(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Vol. 35, pp. 3~25.
- Woods, S. and White, E.(2004).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behaviour, arousal levels and behaviour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8, No. 3, pp. 381~395.

ABSTRACT

A Study on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Shin, Hee-Kyung*

Employing Multiple Logistic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hat effect on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three different types of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namely,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The sample to be examined includes 3,499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2-year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more children are isolated from peer group and the lower the level of their anger i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 passive victims. In addition, the more children experience parental aggressions against them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heir positive attitude toward aggression itself,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 aggressive victims. The experi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by children are found to decrease the probabilities of being both passive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Key words :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Bullies, Continual Development

투고일 : 4월 29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